



평양피아노합영회사

*Pyongyang Piano
J.V. Company*

PACO



회사에서 출품하고 있는 피아노들의 일부
Some of the pianos from the company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의 광복거리에 자리잡은 평양 피아노합영회사는 주체77(1988)년 2월 일본 유한회사 페조와 합영 기업을 창설했던 때로부터 여러가지 상표들을 가진 피아노를 전문제작하고 있는 회사가 모전 생산기지이다.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높은 기술을 가지고 원종은 목재들을 괄라쓰며 피아노선, 솔솔바지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제료들을 통하여 피아노를 제작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한 피아노들은 갖고 풍부한 음란, 감수성있는 손감각, 안정된 소리높이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친환경 아기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200개 나라들에 판매되고 있다.

높은 기술력함으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평양피아노합영회사는 다양한 교육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Pongyang Piano J.V. Company, situated in Kwangbok Street, Pyongyang, the capita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February Juche 77 (1988) as a joint venture with Japanese PACO Co., Ltd. It has so far manufactured pianos of various brands.

With rich experience and high level of technique the company uses wood of fine quality and procures materials with worldwide reputation for strings and felt-covered hammers.

Its pianos are highly appreciated for clear sound and rich volume, delicate touch and stable pitch at the musical instrument exhibitions held in many countries. They are exported to more than 20 countries in Asia and Europe.

It is turning out pianos relying on competent technical personnel, and also promoting various exchanges with foreign counterpart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문출판사

주체106(2017)년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DPRK

Juche 106 (2017)

T-783315

E-mail: flph@star-co.net.kp



생산공정은 소재의 선별부터 가공, 완성, 조립으로 진행된다.

Pianos are produced through the processes of selection of materials, processing, finishing and assembling.



대외교류
Exchanges with other countries

